

윤 대통령 “민주·진보 위장 공산 전체주의 세력 활개”

광복절 경축사…“사회 교란 반국가 세력과 맞서 이길 것” “일본은 협력 파트너”…강제동원 등 과거사는 언급 안해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취임 후 두 번째 광복절 경축사에서 '한미일 안보협력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또 15일 자유민주주의 발전을 저해하는 '공산 전체주의 세력'과 맞서 이기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자유민주주의와 공산 전체주의가 정면충돌하는 가운데 우리 사회에서 갈등을 부추기는 '반국가 세력'의 준동도 경고했다. 공산 전체주의 세력과 반국가 세력 언급이 누구를 겨냥한 것인지에 대해 여러 해석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이날 경축사에서 “공산 전체주의를 맹종하며 조작 선동으로 여론을 왜곡하고 사회를 교란하는 반국가 세력들이 여전히 활개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분단의 현실에서 이러한 반국가 세력들의 준동은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공산 전체주의 세력에 대해선 “늘 민주주의 운동가, 인권 운동가, 진보주의 행동가로 위장하고 허위 선동과 야비하고 패륜적인 공작을 일삼아 왔다”고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오는 18일(현지시간) 미 대통령 별장인 캠프데이비드에서 열리는 한미일 정상회의를 두고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할 3국 공조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한미일 안보협력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다며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대응’을 명분으로 내세웠다. 특히 3국 간 긴밀한 정찰자산 협력과 북한 핵·미사일 정보의 실시간 공유 필요성을 언급했다.

북한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 시스템은 이번 정상회의의 예상 의제 중 하나다. 한미일 정상이 지난해 11월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합의한 이 시스템이 완성될 경우 3국 정찰자산이 수집한 북한 미사일 경보정보가 공유돼 즉각적

인 대응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윤 대통령이 이날 일본의 유엔군사령부(유엔사) 후방기지 역할을 부각한 것도 한일 안보협력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일본이 유엔사에 제공하는 7곳 후방기지의 역할은 북한 남침을 차단하는 최대 억제 요인”이라며 “일본의 유엔사 후방 기지는 그에 필요한 유엔군의 육해공 전력에 충분히 비추어져 있는 곳”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일본을 두고서는 “이제 우리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파트너”로 규정했다.

한일관계 개선은 본격적으로 모색하던 지난해 광복절 경축사에서는 일본을 “힘을 합쳐 나아가는 이웃”으로 소개하며 관계 개선을 추종한 바 있다.

이러한 노력이 성과를 내기 시작한 지난 3·1절 기념사에서는 일본을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주요 여젠다에서 협력하는 파트너”로 밝혔다.

이날 경축사에 위안부 등 과거사와 관련된 구체적인 언급은 없었다.

윤 대통령이 한일 관계와 관련해 자주 언급해온 ‘김대중-오부치 선언’도 포함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안보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 대서양과 유럽의 안보, 글로벌 안보와 같은 축 선상에 놓여 있다”며 서방의 군사동맹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와의 협력 강화 중요성을 언급했다.

또한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 지원 배경을 설명하며 “궁극적으로 대한민국의 자유, 평화, 번영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광복절 경축사에서 경제협력 방안 등 북한의 비핵화 로드맵을 담아 제안한 ‘담대한 구상’은 새로운 내용 없이 추진 의지를 재차 밝히는 정도에 그쳤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15일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대 대강당에서 열린 제78주년 광복절 경축식에 오성규, 김영관 애국지사들과 함께 입장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한미일 정상회의 3국 관계 규율 ‘캠프 데이비드 원칙’ 발표”

美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 보도

한미일 3국 정상이 18일(현지시간) 정상회의에서 3국 관계를 규율하는 이른바 ‘캠프 데이비드 원칙(Camp David Principles)’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미국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가 14일 보도했다.

악시오스는 이날 정상회의에 대해 잘 아는 소식통을 토대로 이같이 전했다.

한국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도 전날 기자들과 만나 한미일 정상회의 결과 문서와 관련, “평문으로 풀어서 일반인들이 쉽게 읽을 수 있는 공동성명

형태가 나올 수 있고 그런 공동성명을 어떤 원칙 아래 일목요연하게 요약해 전문가들이나 언론인들이 파악할 수 있는 주제형 요약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만약 공동성명 외에 ‘캠프 데이비드 원칙’이 채택된다면 이는 한미일 3국 관계를 더 심화·발전시키기 위한 포괄적인 기본 원칙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안정적인 한일 관계가 수준 높은 한미일 3국 협력의 토대가 되는 만큼 미래에 한일 관계가 다시 후퇴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도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를 위해 한미일 3국 정상회의의 정례 개최 등이 ‘캠프 데이비드 원칙’에 명시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악시오스는 “이번 정상회의는 수개월에 걸친 미국 외교의 결과”라면서 “미국 관리들은 한국과 일본이 복잡한 과거를 넘어 단합된 미래를 보다 확실하게 위해 노력해왔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한미일 3국 협력의 목표로 북한·북핵 대응 문제와 함께 ‘규칙 기반의 세계 질서 수호’도 강조할 가능성이 있다. ‘규칙 기반의 세계 질서 수호’는 미국이 중국의 이른바 전랑(戰狼·늑대전사) 외교를 견제하기 위해 사용하는 표현이다. /연합뉴스

윤 대통령 부친 윤기중 연세대 명예교수 별세

장례는 3일 가족장으로

윤석열 대통령 부친 윤기중 연세대 명예교수가 15일 별세했다. 향년 92세.

대통령실 김은혜 홍보수석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이화여대에서 열린 광복절 경축식을 마친 뒤, 곧바로 부친이 입원해 있던 서울 중로구 서울대병원으로 향했으며 부친 임종을 지켰다. 부친은 최근 서울대병원에 입원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 수석은 “윤 대통령은 국경 공백이 없도록 장례를 가족장으로 치르기로 했다”며 “조화와 조문을 사양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에도를 표해준 국민 여러분에게 고개숙여 감사드린다”고 부연했다.

장례는 신촌 세브란스병원에서 3일 가족장으로 치러질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오는 18일(현지시간) 미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리는 한미일 정상회의 참석 등 정상외교 일정은 예정대로 소화할 방침이다.

다만 장례 절차 등에 따라 출국 당일(17일) 출발 시간이 일부 조정될 가능성은 있는 상황이다.

현직 대통령이 임기 중 부친상을 당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기 중 부모상은 지난 2019년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모친상을 당한 이후 두 번째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고인이 오랜 기간 평생을 교단에 머무셨기 때문에 제자들과 학계 지인들의 최소한으로 조문이 이뤄질 것 같다”며 “그 외에도 정중히 사양한다”고 설명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김태우·강만수·이중근 등 2176명 광복절 특사

임성훈 전 나주시장도 포함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 무마 의혹을 폭로한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이 대법원 유죄 확정 석달 만에 사면됐고, 임성훈 전 나주시장도 사면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정부는 중소기업인·소상공인 등 일반 형사범과 경제인, 정치인 등 2176명에 대해 15일자로 ‘광복절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세 번째 특사다.

특사 명단에는 김태우 전 구청장을 포함해 7명의 정치인과 고위공직자가 포함됐다.

검찰 수사관 출신으로 문재인 정부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원으로 근무한 김 전 구청장은 2018년 말 특감반과 관련한 의혹들을 폭로했다.

이 과정에서 공무상 알게 된 비밀을 언론 등을 통해 누설한 혐의로 기소돼 올해 5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고, 구정장직을 상실했다.

지인의 회사가 국책과제 수행업체로 선정되도록

특의압을 넣은 혐의 등으로 2018년 5월 징역 5년 2개월을 확정받은 강만수 전 기획재정부 장관도 복권됐다.

또한 경제위기 극복 및 국가경쟁력 제고에 초점을 맞춘다는 이중근 부영그룹 창업주를 비롯한 경제인 12명도 특사에 포함됐다.

이밖에 정부는 코로나19 종식에 따른 일상의 안전한 회복을 위해 경미한 방역수칙 위반 사범들을 사면했다. 팬데믹으로 인한 일시적 자금 사정 악화 등으로 처벌받은 중소기업·소상공인도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사회적 약자 배려 차원에서 고령자, 시민생계형 형사범, 간병살인 사범 등도 사면 명단에 올랐다. /오광록 기자 kroh@연합뉴스



2023 전남국제수묵비엔날레

Jeonnam International Sumuk Biennale 2023

2023.09.01.-10.31.

목포시 | 문화예술회관 일원 진도군 | 운림산방 일원

주최 전라남도

주관 전남 문화재단 (전남국제수묵비엔날레사무국)

후원 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

외교부

목포시 Jindo 전남남도교육청

광주광역시교육청

한국문화재단

NH농협은행

광주은행

대한미술협회

한국예술종합학교

국립현대미술관

국립목포대학교

국립순천대학교

국립목포대학교



홍보대사 송가인